



문철수 / 정회원, 두양건축사사무소  
by Moon, Chul-soo, KIRA

약력

-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 동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 현 경상남도 문화재 전문위원

주요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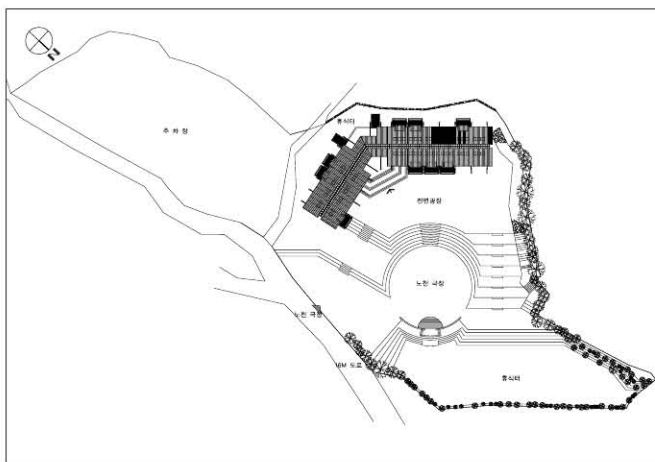
- 목산정형외과, 갑을가든, 함양장례식장,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조성 현상설계공모 당선, 하동 지리산생태과학관 현상설계공모 당선

# 이병주 문학관

Lee Beong-ju Memorial Hall

● 배치도

● 건축개요



0 1 5 10m

- 대지위치 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232번지
- 지역/지구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기념관)
- 대지면적 2,992.00㎡
- 건축면적 504.42㎡
- 연면적 504.24㎡
- 건폐율 16.86%
- 용적률 16.85%
- 규모 지상 2층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내부마감 삼나무 후로링, 수성페인트, 화강석
- 외부마감 방무목사이딩, 동판기와가락잇기
- 구조설계 SNS구조
- 설비·전기 진일설비연구소
- 시공사 두양종합건설(주)
- 설계담당 김형태



- Location 232, Jikjeon-ri, Bukcheon-myeon, Hadong-gun, Gyeongsangnam-do, Korea
- Site area 2,992.00㎡
- Bldg area 504.42㎡
- Gross floor area 504.24㎡
- Bldg. coverage ratio 16.86%
- Gross floor ratio 16.85%
- Structure R,C
- Bldg. Scale F2

1. 원경 2. 외부전경

작가 이병주(李炳注)는 경남 하동군에 있는 북천(北川)이라는 산골짜기 마을에서 태어났다. 백두대간의 끝점 지리산에서 흘러나온 낙남정맥(落南正脈)은 이곳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스치면서 이명산(理明山)을 만들었다. 그 위에 서면 남쪽에 남해바다, 북쪽에 지리산이 보인다. 북천은 그래서 북향의 마을이 되었고, 이병주는 지리산과 함께 자라났다. 산 봉우리에 올라가지 않으면 골짜기 너머를 알 수 없는 그 궁벽한 곳에서 멀리 꿈처럼 보이는 지리산 천왕봉을 바라보며 희망을 키워갔을 것이다.

민족 수난기의 고통과 좌절, 그리고 희망을 담은 그의 소설 '지리산'이 대표작으로 꼽히는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다. 이병주 문학관은 작가가 그랬던 것처럼 이명산의 자락에서 멀리 지리산을 바라본다. 결코 높지는 않지만 산경표(山經表)에서도 낙남정맥의 적자(嫡子), 지리산의 적자로 표기되어 있다. 지리산과 이명산 그리고 이병주문학관은 그래서 떼어놓을 관계로 엮여야만 했다.

북쪽에서 진입하는 동구에 들어서면 이명산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압전하게 둥근 봉우리가 인상적이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 건물로 진입하면 잔디마당이 펼쳐진다. 좌우의 골짜기는 좁다. 그래서 북측 지리산 자락만이 원경으로 보여진다.

건물은 갈매기처럼 가운데 부분이 꺾여있고, 거기에 입구가 있다.

앞뒤가 트인 필로티로 된 입구는 뒤에 펼쳐진 이명산을 담는다. 좌우 출입구에는 작가의 생애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전시실과 강당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입구에 거대한 몽블랑 만년필이 세워져 있다. 어려웠던 시절, 문학을 하는 작가는 아마도 고급 만년필 하나를 훈장처럼 품에 지님으로서, 온갖 괴로움과 배고픔을 잊으려 노력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는 이 만년필을 평생 간직했다고 한다.

그 만년필 뒤, 중앙 공간에는 지리산에서 벌어진 민족의 비극이 펼쳐져 있다. 흰눈이 내린 산중에 피아 구분없이 선명하게 뿌려진 붉은 피... 빨치산과 국군의 전투장면이 미니어처 모형으로 되살아 났다. 작가는 그 비극을 차라리 지지리도 못났던 우리 민족 전체의 책임으로 남기려 했던 것 같다.

천정에는 원고지가 휘날리면서 멀리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나라에 있는 그를 따라 가고 있는 것일까? 아쉽고 아련한 문학의 퍼포먼스...

전시동선의 마지막 코너에는 이병주 작가의 집필하는 모습이 등신대(等身大)로 설치되어 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단정한 모습이다.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좀더 심각하게 고민하며 살도록 일깨워 주는 듯 하다. 전시실을 나와 강당에 가려면 다시 필로티 공간을 거쳐야한다. 또다시 펼쳐지는 지리산 자락... 그래서 지리산은 문



학관과 한 공간, 내부공간의 일부가 된다.


건물의 모양은 산을 닮았다. 말없이 솟은 산처럼 지붕도 경사져 올라간다. 강당에 들어 서면, 전체 공간을 뒤덮는 산 같은 나무 천정이 관람객을 감싸안는다. 그 뒤편 끝에는 마치 내부에서 바라 본 화산 분화구와 같은 천창이 있다. 천정 끝의 천창은 내부에서 빛을 발한다. 태양이 움직이면 햇빛도 따라 움직인다. 산 기운이 내부로 침투해 들어온다. 그래서 높은 강당 공간이 더 높다. 관람을 마치면 또다시 필로티, 뒤에는 이명산, 앞에는 지리산이 서 있다.

'필자'와 이병주의 만남, 이병주와 북한 이명산의 만남, 이명산과 지리산의 만남이 각각이 아닌 전체가 하나로 엮이면서 작가가 사랑했

던 우리 '山河'가 펼쳐진다.

다만, 최초에 이명산 봉우리와 문학관의 입구가 마당에서 한눈에 들어오도록 하고, 꺾여진 건물배치가 만들어낸 마당이 북측의 지리산 쪽으로 향하게 했었는데, 공사과정에서 특별한 협의없이 배치가 변경된 점은 두고두고 아쉬움을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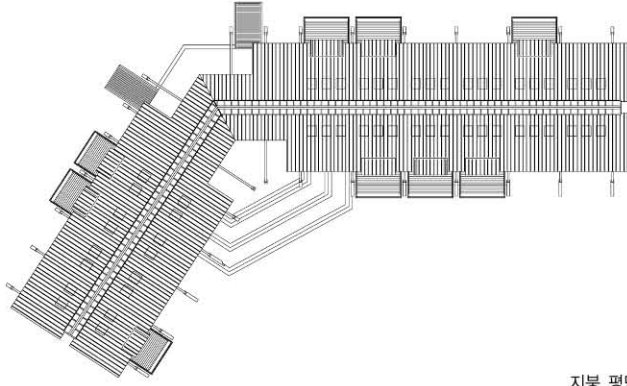
아마도 매우 기능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주차장에서의 건물 진입을 고려해서 그렇게 배치를 바꾸었으리라. 물론 그것도 이병주 문학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식의 존경심 표현이겠지만...

(글\_문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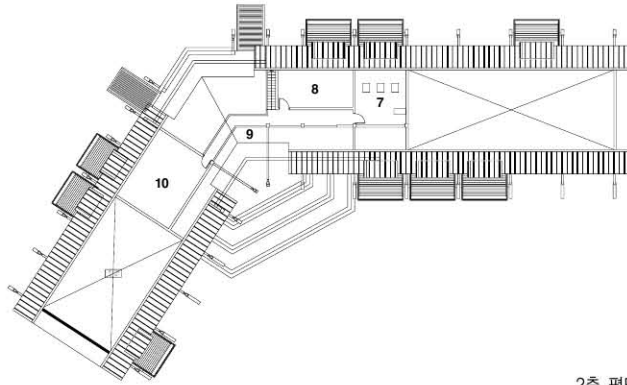
1. 스타하우스-스페이스센터 전경  
2. 스타하우스 앞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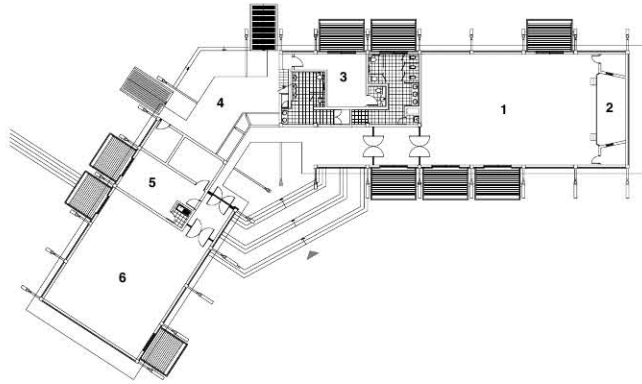
- 01\_ 강당
- 02\_ 무대
- 03\_ 창작실
- 04\_ 로비
- 05\_ 사무실
- 06\_ 전시관
- 07\_ 물탱크실
- 08\_ 창고
- 09\_ 브릿지
- 10\_ 예비실



지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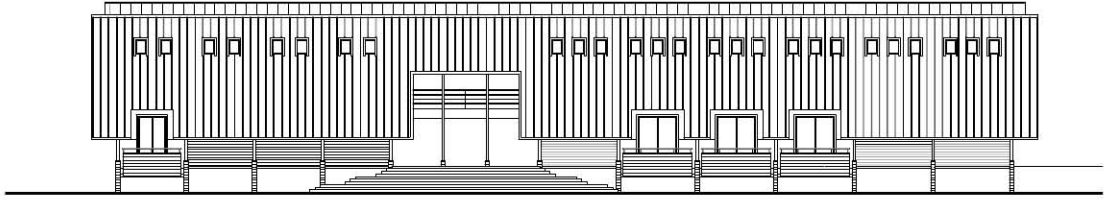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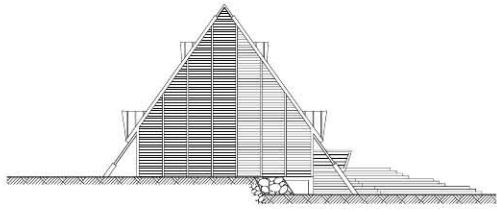
0 1 3 5m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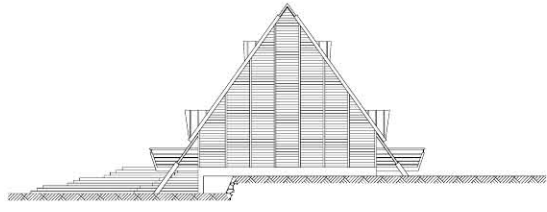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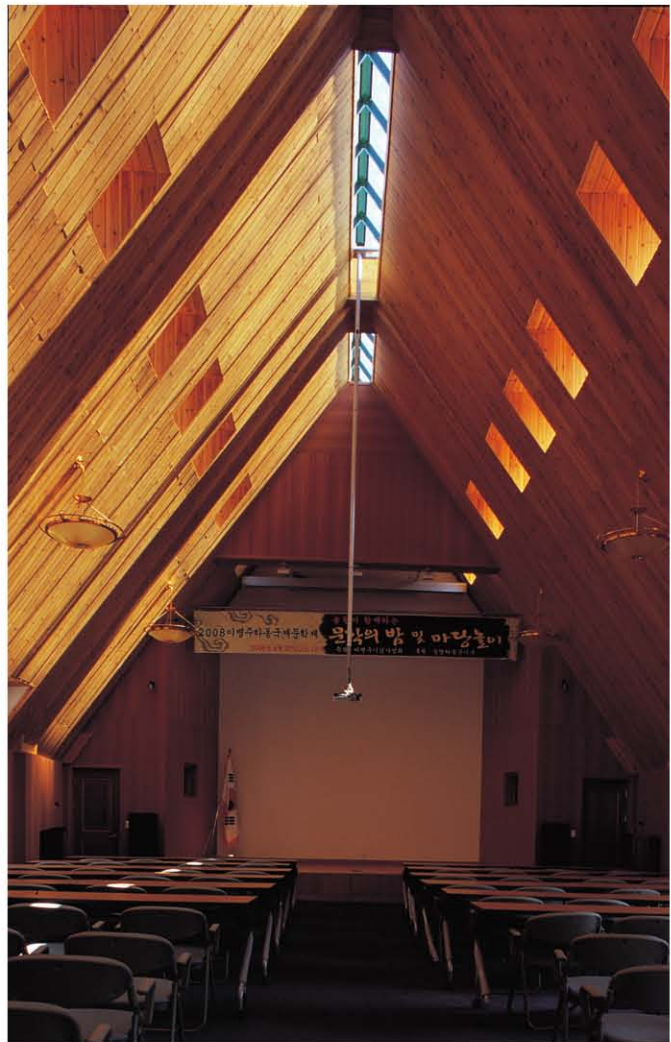
0 1 3 5m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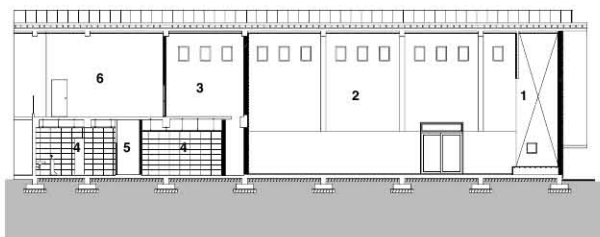
우측면도

- |        |       |       |       |       |
|--------|-------|-------|-------|-------|
| 1      | 2     | 3     | 4     | 5     |
| 1. 전시장 | 2. 강당 | 3. 로비 | 4. 천장 | 5. 천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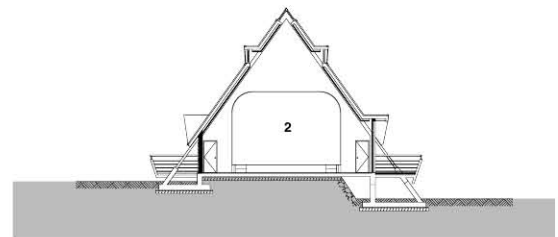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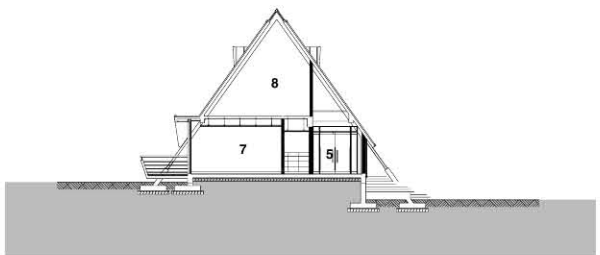
- 01\_ 무대      04\_ 화장실      07\_ 사무실
- 02\_ 강당      05\_ 방풍실      08\_ 예비실
- 03\_ 물탱크실      06\_ 복도      09\_ 입구홀
- 10\_ 전시관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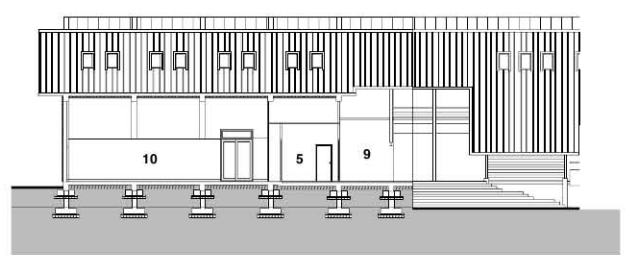


횡단면도



횡단면도

0 1 3 5m



중단면도